

하루 매출 1000만원...로컬푸드 '전성시대'

전남농협, 율 62개로 확대...참여농업인 4천명 3년새 2배
농식품부, 순천2·나주 1곳 포함 전국 28개 우수매장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시장이 지난해 5200억 원대로 성장하면서 광주·전남 농가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 20개·전남 45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한 해 동안 881억 15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전남 직매장 연 평균 매출은 16억4400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광주 20개 매장의 연 평균 매출은 7억8000만원으로 전국에서는 10번째, 광역시 중에서는 4번째로 높았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전국 469개 매장은 52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순천로컬푸드 조례호수공원점' 등 7곳을 새로 선정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는 직거래농산물 비중, 지역농산물 비

중, 안전성 관리, 여성·고령농 참여율, 소비자 교류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세웠다. 2017년 12곳, 2018년 9곳에 이어 지난해 7곳까지 모두 28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순천 2곳·나주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사업장은 매장당 1000만원의 홍보 마케팅비와 해외연수 참가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순천로컬푸드 조례호수공원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여농가(468명)를 자랑하고 있다.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순천로컬푸드(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민·관협업 사례로 평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참여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자 자조회 모임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실적은 연간 259건으로 신규 인증사업장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로컬푸드 직매장 연 평균 매출

(※괄호 안은 개수, 2019년 기준, 단위: 원)

지역	매출
1 세종 (5)	56억1000만
2 대구 (8)	23억200만
3 전북 (54)	17억5500만
4 경기 (76)	16억8500만
5 전남 (45)	16억4400만
6 충남 (54)	9억8000만
7 인천 (5)	8억600만
8 제주 (5)	7억9400만
9 울산 (20)	7억1600만
10 광주 (20)	7억800만
11 경북 (38)	5억9700만
12 대전 (15)	5억7300만
13 강원 (38)	5억7100만
14 충북 (27)	5억1500만
15 경남 (45)	4억1600만
16 부산 (3)	4억1100만
17 서울 (11)	9900만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특했다. 소비자 체험 등 도농교류 행사를 연간 13회 열며 소비자와 신뢰를 돈독히 쌓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국에서 2번째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은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은 혁신도시 거주여건 개선에 공을 세웠다.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은 하루 매출 1000만원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 회원 수만 1만3000명이 넘고 소셜미디어(SNS) 회원도 3000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생겨날 전망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난해 기준 42개에서 올해 62개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전남본부 소속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는 2016년 2547명에서 지난해 404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농협 광주본부도 로컬푸드 직매장 6곳이 매년 50% 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도시농협' 특성을 살린 '샵인샵(Shop in shop)' 형태 매장을 늘릴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4.89 (-21.88) ↑ 금리(국고채 3년) 1.19 (+0.06)
- ↓ 코스닥 638.17 (-16.46) ↑ 환율(USD) 1217.20 (+0.30)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코로나 추이 좀 더 지켜보아야
올 성장률 전망 2.1%로 낮춰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나오리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전개를 좀 더 지켜본 뒤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이다.

한은 측은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국

제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금리 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했다"며 "이 같은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의 2.3%에서 2.1%로 소폭 낮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부터 전남 읍·면 우체국 221곳서 마스크 판매

1개 800원, 1인당 5개 제한

정부가 농협 하나마트·우체국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이르면 28일부터 전남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읍·면 우체국 221곳은 28일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1개당 800원에 판매한다. 1인당 구매량은 5개로 제한한다.

마스크 공급 우체국은 목포 16곳, 고흥 15곳, 나주·해남 각 13곳, 화순 12곳, 여수·순천·담양·보성·완도·장성 각 11곳, 강진·곡성·영광·영암 10곳, 무안·장흥 9곳, 함평 8곳, 광양·구례 7곳, 진도 6곳 등이다. 판매 우체국 정보는 우정사업본부, 인

타넷우체국 홈페이지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농협 하나마트·우체국·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결정했다. 27일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먼저 풀렸다.

농협 전남본부는 28일 전남지역 353개 하나마트 등 오프라인 공급을 시작한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이날 풀리는 물량은 15일간 프리미엄 마스크 품질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필품 수요 급증에 대형마트 할인 행사

롯데마트·이마트 최대 40% 할인

대형마트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증한 생필품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자체 소량물 배송주문이 지연되면서 이들 매장은 오프라인 할인 행사에 소비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이른바 '삼겹살 데이'(3월3일)를 앞두고 돼지고기 300t과 한우 50t을 20~40%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라면과 가정간편식, 즉석밥, 쌀 등도 3월1~3일 행사 카드로 사면 20~30% 할인해준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신선식품, 가공·생활용품 등 생활필수품 30여개를 선정해 최대 40% 할인과 '1+1' 행사를 한다. 이는 이마트가 지난해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내세운 '국민가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 400t, 냉동 대패삼겹살, 쌀, 갈치 등을 할인 판매한다. 삼겹살은 행사 카드를 이용하면 100g당 840원에 살 수 있다. 통조림과 세제, 화장지 등은 1+1이나 2개입 기획 상품으로 구성해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돕기 10억 출연



송중욱(왼쪽) 광주은행장은 지난 26일 광주신보에 코로나19 피해업체 금융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출연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6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1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특별 보증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고객이 부담하

는 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7%~1.0%로 우대적용한다. 대출금리도 최대 0.7%포인트까지 특별우대한다.

광주은행은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도 조기 출연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이달 초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광주시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사업 5억원, 복구청 소상공인 특

례보증에 5000만원을 특별출연했다.

송 행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남 보해매실농원, 땅끝매화축제 취소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남 땅끝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매실농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땅끝매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해남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실농원 입장도 통제할 방침이다.

보해농원은 해남군과 축제를 축소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지역민 안전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매실농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해양조가 만든 해남 보해매실농원은

해남군 산이면 14만평 일대에 펼쳐진 국내 최대 규모 매실농원이다. 1979년 조성된 이후 매화꽃이 피는 3월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등 해남을 대표하는 명소다. 보해는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청매실을 원료로 프리미엄 매실주인 '매취순'을 생산하고 있다.

보해농원 관계자는 "보해는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전염병을 차단하고자 축제를 취소했다"며 "농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려고 축제기간에 매실농원 방문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